



의심죄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추격해 오는 애굽 병사들의 위협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또 모세를 원망하였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만나를 내림으로써 그 양식을 대신하였고, 목이 마르다 하니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였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 떼를 몰려 오게 하여 고기를 먹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고 돌비를 깨어버린 모세

시내산에 이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 40일을 내려오지 않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아론은 금불이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그들의 신으로 숭배하였다. 40일 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명을 받은 두 개의 돌비를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뜨고 볼 수 없는 방탕한 추태에 분개하여 돌비를 집어던져 돌비가 깨어져 버린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다

나안 사람들을 치기를 중용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믿고 두려운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렘을 돌로 치려하자,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노하신 하나님이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모두 죽이려 하시거늘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청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기를 "20

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 중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며 40년 이내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 말씀 후에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렇게 40년의 광야의 생활동안 20세 이상의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했다하여 가나안의 여리고성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된다.

요단강을 못 건넌 모세

모세의 죄는 의심죄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위에 게 일러 "물을 내라"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 하였는데 이를 미심쩍게 여긴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친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였다. 이는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위가 물을 내어라" 하면서 자신이 물을 치는 우를 범하였으므로 자신이 물을 내는 능력이 있음같이 회중이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성경상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에서 120세의 나이로 그의 한 많은 인생의 여정을 마감하였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받았지만 후계자 여호수아는 오직 믿을 하나로 요단강을 건넜다. 모세의 홍해를 가르느 기록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다. 언약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바대로 의심 없이 물이 가득 차있는 요단강에 발을 디뎠다.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며 길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야하는 길이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승리대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 앞만 보고 전진하자.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원하시나요?
Do you want to have the Ageless, Immortal and Eternal life?
불멸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Without fail, Dreams for immortality comes true!

▶ 이긴자 조희성 구세주님께서서는 앞으로 죽음의 시대는 끝나고 영생의 시대가 올 것임을 이미 1980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Since 1980, the Messiah, the Winner Cho Hee Sung, has already said that the world of death will end and there is coming a time of eternal life.

▶ 성경과 불경의 바로 그 핵심은 오직 '영생'에 있습니다. 구세주가 출현하면서 영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The very core of the Bible and Buddhist scriptures is only "eternal life". When the Messiah appears in the world, human beings can have the eternal life.

▶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신인 고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디도서 1:2)"

The Bible says; God, as God of immortality, engaged himself to make human beings gain an everlasting life. (Titus 1:2)

▶ 태초에 하나님이 마귀한테 저서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긴자 구세주가 마귀를 이기시어 죽음의 세상이던 마귀의 세상을 영생의 세계로 만들고 계십니다.

In the beginning, God of beginning of the world is defeated by Satan, so the Earth became the world of death. However, Messiah won the victory from Satan, having the world of death original site of immortal life.

▶ 결국, 마귀의 정권이 하나님의 정권으로 바뀌어진 고로 죽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죽으려 죽을 수가 없는 영원무궁토록 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Eventually, the death will go completely unnoticed, for this world is changing from the regime of Satan to the power of God. The time that the death is gone or the era that human being cannot die in death, is drawing nearer.*

by Alice

속담 속의 영생학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은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리 없다는 뜻이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쉽게 헛되이 되지 않으며 그만한 보람이 있으리라는 말이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매스컴에서는 야단법석이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우환이 없다는 말처럼 마을사람들이 힘을 모아 미리미리 쌓은 강가의 둑은 굵은 장맛비에 또렷없이 버티게 될 것이다. 역수같이 퍼붓는 장맛비에 곳곳이 버틴 것을 확인할 때에는 이구동성으로 역시 공든 탑은 안 무너진다고 말할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35년째 장마를 막고 계신다.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설사 오더라도 필요한 양만큼 내리고 만다. 구세주께서 장마를 막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구세주의 권능으로 우리 승리제단 성도님들은 장맛비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구세주께서 지금까지 장마를 막으신 것도 무너지지 않는 공든 탑이 될 것이다.

영생을 주려고 오신 구세주께서는 6천년 간의 가나안 공든 노력 끝에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주셨다. 승리제단의 성도님들은 끝없

는 인내로 구원이 보장 된다는 것을 매일 매일 구세주와 함께 예배를 보면서 깨닫는다. 생명의 만나 감로 이슬과 함께 나라는 의식이란 죄의 시술에서 벗어나고자 인내 또 인내하면서 일에 재갈을 무는 심정으로 자신 속의 사망의 신을 짓기고 죽이기를 각자 거듭하고 있다.

인내 속에 사랑이, 인내 속에 화생이, 인내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있다. 인내만이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오륙이처럼 구세주의 은혜로 자신 속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생의 여행 과정이다.

구세주께서 걸어오신 과정을 만 분의 일만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온전히 말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인내의 공든 탑을 묵묵히 쌓고 있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진짜 참 향이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고 그 노력은 반드시 성공의 왕관을 쓰게 될 것이다! A Man's labors will be crowned with success!*

참고문헌

우리말 바꾸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장의 기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어야 하는데 문맥상 의미가 통할 때에는 우리말의 특성상 주어가 생략되거나 이중 주어가 오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읽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도록 고쳐보자.

예1)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일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것은'이며 서술어는 '바랍니다'이다. 이 둘은 이 문장에서 호응을 이루지 못하므로 서술어를 '바란다는' 점입니다.'로 고쳐야 한다.

예2) "현재의 복지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복지 정책은 '전망입니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따

라서 '전망입니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로 고쳐야 한다.

예3)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면,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이 든다."

'든다'의 주어는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인데, 여기서 '비용과 노력'은 '든다'라고 하지만 '시간'은 '결린다'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므로 '노력이 들고,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고쳐야 하겠다.

예4) "이 지역은 무단 입산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의 주체는 '이 지역'이 아니라 '입산자'이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도록 고치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에 무단 입산하는 자는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승우 기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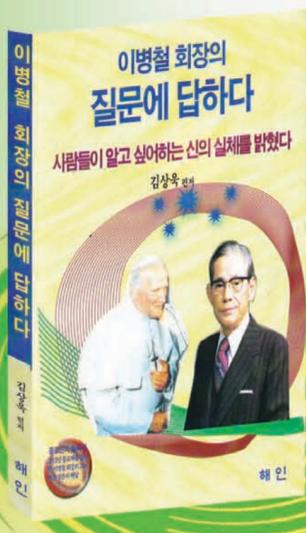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목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어진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정이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

● 하나님이 선하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종말 인류의 미래

● 지구에 종말이 올까?
●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자와 천국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장생 천국한 삶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시중 서점점찰 판매중

도서출판 해·인